

한국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

신 성 재**

1. 머리말
2. 창군기 ~ 6·25전쟁기 정모휘장의 특징과 변화
 - 가. 해방 이후 ~ 창군기의 정모휘장과 그 특징
 - 나. 6·25전쟁기 미 해군식 문양으로의 변경
3. 1950년대 중반 새로운 정모휘장의 제정과 의의
 - 가. 정모휘장의 개정 추진과 새로운 휘장의 탄생
 - 나. 거북선 문양의 휘장 제작과 해군사적 의의
4. 맺음말

1. 머리말

해양력이 국가발전의 핵심이라고 공감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사력인 해군에 관한 역사적 관점

* 본 논문은 2014년도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의 국고연구과제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한국사 전공.

에서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 해군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현대 해군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손원일(孫元一) 제독의 창군과 해군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손원일 제독의 일생은 물론 창군기의 주요 업적과 창군정신, 해군력 건설 과정에서의 역할과 활동, 리더십 등에 이르기까지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축적되기에 이르렀다.¹⁾ 한편 6·25전쟁 기간 중에 미국이 추진한 대한 군사정책이 한국 해군의 조직 및 부대, 함정전력 건설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성과도 제시되어 창군기 해군력 건설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되었다.²⁾ 최근에는 한국 해군이 6·25전쟁 중에 수행한 해군작전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³⁾와 1945년 창군기부터 2008년까지 해군이 발전해온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성과도 제시되었다.⁴⁾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해군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과 현대 해군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에서 해군의 존재와 역할, 전쟁 국면에 끼친 영향, 해군의 전략적인 가치와 미래 해군력 건설의 방향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하지만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해군 복식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⁵⁾ 그 중에서도 해군의 이념과 전통,

1) 손원일 제독과 관련한 주요 성과는 신성재, 「손원일 제독의 해군건설과 수군전통 계승활동」, 『軍史』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11~115쪽 참조.

2) 임성채, 「6·25전쟁 중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軍史』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3)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0.

4)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5) 복제사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체계적인 성과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1994년에 해군본부의 용역과제로 정리된 『해군복제사 편찬 I·II·III』(예비역 최득림, 이하준, 김문선 참가)와 國防軍史研究所가 1997·1998년에 펴낸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I』가 있어 참고된다.

정체성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이나 표지(標識)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해군의 상징이자 정체성의 표상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장교의 정모휘장(正帽徽章)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군 장교의 정모휘장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문양으로 정립되고, 또한 그 문양으로의 정립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복제사의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장교의 정모휘장에 주목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장교의 정모휘장이 변천되는 과정을 정리한다면 오늘날의 한국 해군이 과거로부터 어떠한 전통을 계승한 군대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군 정체성의 역사적인 기원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 중반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군본부가 2013년 말에 창군기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생산한 복제사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예식복제기록물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⁷⁾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사용되었던 정모휘장의 특징과 변화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군을 창설하던 시점에서 사용되고 있던 휘장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미 해군식 문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1950년대 중반 새로운 휘장의 제정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모휘장에 대한 개정이 모색되어 새로운 휘장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6) 당대의 관련 자료들을 보면 모표(帽標)로 표현된 기록이 발견된다. 하지만 대부분 모표보다는 정모휘장으로 호칭되었기에 이것으로 통칭하여 서술한다.

7) 해군본부가 2013년 말에 원사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CD본을 제작하였다. 이하에서 인용한 공문서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CD본에 근거하였으며,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보관중인 CD본을 참고하였다(관리번호 : 14-D-전-000020).

거복선을 핵심 문양으로 하는 독창적인 형태의 휘장이 제정된 사실에 대하여 해군사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2. 창군기~6·25전쟁기 정모휘장의 특징과 변화

가. 해방 이후 ~ 창군기의 정모휘장과 그 특징

대한제국의 군대는 1907년 8월 1일자로 일본 제국주의가 추진해 온 치밀한 계략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산당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⁸⁾ 일제는 군대 해산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였고, 1910년에 이르러서는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강점 기간 동안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가 추진한 식민지 지배정책은 정치·사회·경제·국방·문화·생활 등 국가 운영의 전 영역과 우리 민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체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해방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고, 해군 역시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해방병단(海防兵團: 해군의 모체)이 창단되던 1945년 11월 11일부터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패망한 일제가 남겨두고 간 군복을 착용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은⁹⁾ 그러한 영향에 따른 결과였다.

김정자의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것처럼,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8)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과정은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258~280쪽;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77~294쪽;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⑨』(근·현대 I), 경인문화사, 431~459쪽 참조.

9) 김정자, 『한국군복의 변천사』, 민속원, 1998, 340~341쪽.

부터 1946년까지는 우리 손으로 제정한 군복이 없었다.¹⁰⁾ 미군정으로부터 일본군이 사용하던 군복을 지급받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개조를 하여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어깨걸이 혁대를 차고, 발에는 편상화를 신고, 각반을 맨 일본군의 군복을 착용한 것이 이 시기 해군 장병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미군정이 통치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부에서는 커다란 주머니를 붙인 미군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¹¹⁾ 대체로 일본식 군복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미군복이 혼용되는,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명확한 복제 규정이 부재하여 통일된 군복을 착용하지 못하던 어정쩡한 상황이었다. 해군이 창군기에 복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일본식 군복을 착용하였음은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관 임명이 없이 계급이 모두 없다. 하사관 및 병에 계급 부여를 못했다. 피복이 없어 입대 당시의 의복 그대로 입고 있으니 형형색색이고 남루하기 짝이 없다. 신발은 풀로 만든 신을 사 신었다. 손제독(孫提督: 손원일 제독을 말함 - 필자 주) 이하 사관들도 일본군 하사관 모자에 수병의(水兵衣)를 개조하여 착용하였다. 사병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배가 한 척도 없어 해군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 일본군의 최후 발악으로 폐허가 된 영내 환경정리 작업이 심하였다. 법령 미정으로 위반자의 처벌이 곤란하였다.”¹²⁾

위는 김성삼(金省三) 예비역 제독이 1951년 6월 1일에 창군 당시의 생활을 회고하며 『해군』 창간호에 기고한 글 중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기록을 통해 보듯이 해군 창설기의 상황은 인력이나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장교에 대한 임명이 거의

10) 陸軍服制史編輯委員會, 『陸軍服制史』, 1980, 陸軍本部, 165쪽.

11) 위와 같음.

12)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1, 29~30쪽.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장교와 하사관, 병의 계급 체계 역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의복이 없었기 때문에 입대 당시에 입고 있던 형형색색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군화가 없어 풀로 만든 신발을 신고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해방병단을 창단한 손원일 제독을 비롯하여 장교 모두 일본군 하사관용 모자에 수병들에게 지급되던 군복을 개조하여 착용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표현은 해군이 창군 초기부터 일정한 기간까지는 독자적인 수준의 복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실상을 반영한다.¹³⁾

손제독을 비롯한 장교들이 일본군 하사관용 모자를 착용하였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는 창군기 해군 장교들의 정모휘장이 일본군의 그것과 동일하였던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군복과 군모에 있어서는 일제 때 썼던 것을 당분간 사용할 수밖에 없던 현실이었지만, 정모에 부착된 휘장 만큼은 창군기부터 대한민국의 해군임을 상징하는 문양이 반영된 특징이 발견된다. 관련 자료를 보자.

〈자료 ①〉



〈자료 ②〉



자료 ①¹⁴⁾은 1947년에 해군장교들이 착용하였다고 전해지는

13) 1945년 11월부터 1951년 말까지는 명확한 복제 규정이 없었다(金舜圭, 앞의 책, 1998, 270쪽).

14)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66쪽(도판 108, 초창기 해군장교 정모).

정모로 그 중앙에 휘장이 부착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정모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모휘장의 재질은 천으로 제작되었다. 자료 ②¹⁵⁾는 손원일 제독이 1949년 12월 26일에 뉴욕항에서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에 대한 명명식을 거행하였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앞서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창군기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모휘장의 구성적 측면을 보면 앵커(anchor)와 무궁화, 무궁화 잎사귀를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모휘장이 제작된 구조와 형태를 보면, 중앙에 앵커를 위치시키고, 그 주위를 무궁화 잎사귀로 감싸고 있으며, 앵커의 상단에 활짝 핀 무궁화를 배치한 형상이다. 앵커는 전 세계적으로 해군과 군함을 상징한다.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는 우리나라의 국화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¹⁶⁾ 따라서 이 시기에 사용된 장교의 정모휘장에는 당시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던 앵커 문양과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및 무궁화 잎사귀 문양이 동시에 반영된 특징이 발견된다.¹⁷⁾ 이는 세계 해군들이 인정하던 보편적인

15)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탄신 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2009, 28쪽(도판 13, 백두산함의 명명식, 1949.12.26.).

16) 國防軍史研究所, 1997, 앞의 책, 476쪽.

17) 무궁화 문양이 반영된 정모휘장이 갑자기 출현한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 근대식 해군의 최초 군함인 양무호의 초대 함장을 역임한 신순성을 촬영한 1907년 11월 16일자 사진을 보면 창군기의 휘장과 일치하는 문양의 정모를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전시 액자 참조. 촬영 일자는 없지만, 같은 사진이 金在勝, 『韓國近代海軍創設史 - 구한말 고종시대의 근대식 해군과 군함』, 해안, 2000, 156쪽에도 실려 있다).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창군기의 정모휘장이 대한제국기 문관 및 군인들의 복식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무궁화 혹은 오얏꽃(李花紋)을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대한제국기에 문관 및 군인의 복식 문양으로 무궁화와 이화문이 널리 사용되었음은 國防軍史研究所, 1997, 앞의 책, 400~415쪽; 이정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2012, 195~236쪽 참조. 한편 정모휘장의 형태와 배치 구도는 대한제국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영국 및 일본 해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문양과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을 조화롭게 배치한 것으로, 한국의 현대 해군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자료 ②를 보면 백두산함(白頭山艦)에 대한 명명식이 거행되던 1949년 12월 26일까지는 창군기에 제작되었던 정모휘장이 원형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군기에 제작된 정모휘장이 어느 시점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대한해협해전(大韓海峽海戰)¹⁸⁾을 승리로 이끈 백두산함 함장 최용남(崔龍南) 중령이 5월 22일에 승조원 장병들과 촬영한 기념사진을 보면 창군기의 휘장과 동일한 문양의 정모를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⁹⁾ 이 당시에 촬영된 사진 자료에 근거해보자면 1950년 5월까지의 창군기에 착용하던 정모휘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해방 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창군기에 사용하고 있던 정모휘장이 별다른 개조나 변조 없이 원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 6·25전쟁기 미 해군식 문양으로의 변경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문양과는 다른 휘장으로 변경되었다. 손원일 제독이 1952년 11월 19일에 미 해군부대를 방문하였을 때 촬영된 사열 장면 사진을

18) 대한해협해전에 대해서는 다음 성과를 참조. 최영섭, 「대한해협해전의 교훈」, 『戰史』 5, 200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323~332쪽; 해군본부, 2010, 앞의 책, 96~114쪽.

19) 함명수, 『바다로 세계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28쪽 701함 승조장병들.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백두산함 함장 최용남 중령과 김성삼 대령의 근영 사진 속에서도 창군기의 정모휘장과 동일한 문양의 정모를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같은 책 44쪽 및 47쪽 참조.

보면 창군기의 문양과는 다른 독수리 형상이 휘장의 상단에 부착된 정모를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²⁰⁾ 관련 자료를 보자.

〈자료 ③〉



〈자료 ④〉



〈자료 ⑤〉



먼저 자료 ③²¹⁾은 손원일 제독이 1950년 초에 착용하였다고 전해지는 정모 유품이다. 이 정모는 현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 ④²²⁾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을 감행하기 직전에 피카웨이(USS Pickaway) 함상에서 손원일 제독과 피카웨이함 함장이 촬영된 사진이다. 양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손원일 제독이 유품으로 남긴 정모의 휘장은 피카웨이 함장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휘장과 비교하여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다. 앵커를 교차한 중앙에 양각의 문양을 부착하고, 그 상단에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를 배치시킨 형태는 양자간의 유사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휘장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독수리 형상이 미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에 부착된 문양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손원일 제독이 한국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을 미 해군장교의 그것과 유사한 문양으로 변경하였음을 말해준다. 당시 변경된 정모휘장의 문양은 자료 ⑤²³⁾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09, 앞의 책, 46쪽(도판 3, 미 해군 방문, 1952.11.19.). 이 때 손원일 제독이 착용한 정모의 휘장은 자료 ⑤의 문양과 같다.

21)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09, 앞의 책, 53쪽(도판 49, 손원일 제독 정모, 1950.).

22)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09, 앞의 책, 44쪽(도판 34, 인천상륙 직전 피카웨이 함상의 손원일 제독(좌), 피카웨이 함장(중), 미 해병대 장교(우), 1950.).

23)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1997, 앞의 책, 66쪽(도판 109, 해군장교 모표 변천).

자료 ⑤를 보면 앞서 소개한 자료와는 달리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 당시 변경된 정모휘장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유사성은 교차된 앵커와 독수리 문양, 전반적인 배치 구도가 일치한다고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한국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이 미 해군장교의 그것을 모방하여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앙에 새겨진 문양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 해군장교의 문양은 정확한 식별이 어렵지만, 한국 해군장교의 문양과는 다르다. 한국 해군장교의 문양은 지구본 상단에 동아시아 해역과 한반도의 지도를 표현하고, 하단에는 활짝 핀 무궁화를 중앙에 새기고 그 주위를 무궁화 잎사귀로 에워싼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손원일 제독이 비록 미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을 모방하여 그것과 유사한 형상으로 변경하였지만, 한반도와 무궁화로 대표되는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문양을 동시에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아서는 미국의 해군 제도와 문화 등이 한국 해군에 유입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분위기 속에서 미 해군식 문양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군장교 정모휘장이 미 해군식 문양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된 시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고증이 필요하겠으나, 앞서 언급한 1952년 11월 19일 손원일 제독이 미 해군부대를 방문 시에 촬영한 사열장면 자료와 후술할 국방부가 국군복제규정 제정을 추진해 가던 과정을 종합해 보아서는 대략 1952년 12월 이전의 어느 시점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국방부가 단기 4285(1952)년 9월 17일에 『복제 규정안 제출에 관한 건』으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²⁴⁾, “국군조직법 제21호에 의거하여 국군복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니 각 군(대)는

24) 『복제 규정안 제출에 관한 건』, 국방법제 내발 제7호, 4285년 9월 17일.

초안을 작성하여 오는 10월 15일까지 위반함 없이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같은 지시에 대해 각 군은 10월 말까지도 복제 규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월 29일자로 국방부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²⁵⁾, “지금까지 제출이 없음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초안을 11월 15일까지 위반 없이 제출할 것”을 재차 지시하고 있다.

해군 또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10월 13일자 해군발 제 2700호로 해군복제위원회(海軍服制委員會)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복제 규정을 정립해가고는 있었지만²⁶⁾, 완성된 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11월 10일과 11월 25일에 해본본부 고급부관실 소속 이축진 소령이 예하에 독촉장을 발송한 것은 이러한 실정을 말해준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는 해

〈자료 ⑥〉



군 및 해병대의 복제규정안을 작성하여 12월 6일자로 국방부에 제출하였다.²⁸⁾ 이 때 제출한 복제규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교의 군모휘장을 “흑색 라사지애다 금색 앵커를 2개 교착하고, 그 위애다 직경 2센티미터의 지구 형상 위애 폭 8센티, 높이 2센티미터로 날개 벌린 독수리형을 배치한 것으로 주위 전면 중앙애다

25) 『법령 초안 제출에 관한 건』, 국방군법제 내발 제17호, 4285년 10월 29일.

26)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行政·作戰合篇 第3輯, 1961, 23쪽.

27) 해군본부 고급부관실, 『독촉장』(제41·50호), 4285년 11월 10일·29일.

28) 『해군복제규정안 제출의 건』, 인발 제1937호, 4285년 11월 28일; 해본한제 2489호, 12월 6일. 해군본부가 해군복제규정안을 12월 6일자로 국방부에 제출하였음은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규정안을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손원일 제독이 1952년 11월 19일 미 해군부대를 방문하였을 때에 착용한, 창군기의 문양과는 다른 형태의 휘장(주20 참조)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부친다”²⁹⁾고 규정한 점이다. 이 규정과 함께 자료 ⑥과 같은 문양의 도면이 첨부되었다.

자료 ⑥³⁰⁾은 국방부에 제출된 해군복제규정안에 수록된 정모휘장 도안으로 앞서 제시한 자료 ⑤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1952년에 이르러 한국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이 미 해군식 문양으로 변경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도안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원일 제독이 창군기에 사용하던 휘장과 다른 미 해군식 문양으로 정모휘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간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손제독의 청년기에 형성되었음직한 해양관과 1950년을 전후하여 산견(散見)되는 해군력과 국가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전략적 식견, 해양전략 사상 등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손제독은 독립운동가로 명망이 높았던 손정도 목사의 아들로 자주성과 진취성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해양을 둘러싼 세계사의 흐름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독립될 조국의 미래가 해양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³¹⁾ 1920년 후반 중국 남경(南京) 중앙대학(中央大學) 농학원(農學院) 항해과에 유학하던 시절의 기록을 보면, “바다에는 미래가 있다. 지금은 빼앗긴 나라이지만 언젠가 나라를 되찾는 날은 우리도 해양으로 뻗어나가야만 한다”³²⁾며 해양으로의 진출을 염원하는 구절이 나온다. 비록 간략한 표현이지만, 조국의 운명을 해양에서 찾고, 독립 이후의 국가 변영과 발전이 해양력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³³⁾ 이러한 인식은 1954년 4월 5일에 발행된 『대한민국해군사』

29) 위와 같음.

30) 해군역사기록관리단 CD본 자료(관리번호: 14-D-전-000020) 참조.

31) 대한민국해군, 『해군장교 리더십-성찰 그리고 실천』, 2007, 35쪽.

32)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22일.

33) 신성재, 2014, 앞의 논문, 117쪽.

제1집의 서문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보다 확고한 인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으로의 진취성이 강한 민족은 융성하고 약한 나라는 쇠퇴의 길을 밟아 왔다는 사실은 과거의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해양을 제패하는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이 사실을 갈파한 것이다.”³⁴⁾ 손제독이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 : 1840~1914)이 제창한 해양력 이론을 근거로 해양진출과 국가 발전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손원일 제독이 마한의 해양전략 사상을 학습하였다고 전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양을 제패하는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손제독이 세계적 수준의 미국 해군을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마한 제독의 해양전략 사상을 접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손제독은 마한이 설파한 해양력 이론과 전략 사상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군 구성원 또한 그와 같은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해 나아간다면 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손제독의 강력한 해군력 건설에 대한 염원은 1953년 7월 5일자로 표기된 참모총장 이임사의 내용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도 대통령 각하께서 나에게 국방을 맡아달라는 말씀이 계셨으나, 그 때는 국방보다 해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군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발전에는 한도가 있는 것인데만 무진장한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에서 발전한다면 국내는 자연적으로 따라 오고 위신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

34)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編 第1輯 序文, 1954, 9쪽. 책자는 1954년 4월 5일에 발행되었지만, 서문의 내용은 동년 3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

있었던 것입니다.”³⁵⁾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해군력의 가치를 우선시할 만큼 조국의 미래가 해군력을 여하히 건설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확신하는 기록이다.³⁶⁾ 국가 건설과 해군력의 상관성에 대한 손제독의 명확한 신념과 전략적 식견을 짐작케 한다.

손제독의 해군력과 국가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 해군 중심의 국가 건설과 전략사상, 강력한 해군력 건설에 대한 염원은 1950년 초기에 추진되었던 해군장교 정모회장의 변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손제독에게 있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은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다. 따라서 당시 세계적 수준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 해군이 지향해야 할 표본이자 이상적인 모델로 삼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창군기의 문양에서 미 해군식 문양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강력한 해군력을 상징하는 미 해군식 문양으로의 변경은 곧 미국과 같이 강력한 수준의 해군력을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문양으로의 변경이 가능하였던 셈이다. 독수리로 상징되는 미 해군장교의 휘장 문양이 한국 해군장교의 정모회장에 동일하게 반영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3. 1950년대 중반 새로운 정모회장의 제정과 의의

가. 정모회장의 개정 추진과 새로운 휘장의 탄생

6·25전쟁기에 변경되어 수 년간 사용되었던 정모회장은 1955년

35) 해군본부 정훈감실, 1971, 「이임사」, 『역대 해군참모총장 훈시문집』 제1집, 19쪽.

36) 신성재, 2014, 앞의 논문, 119쪽.

(4288) 중반에 이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5년 5월 31일자로 소집된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서 해군장교 정모회장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결에 따라 6월 3일자로 해군 전반에 대한 모집 공고가 시달되었다. 모집된 결과는 7월 22일자로 소집된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모집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인사국이 주관하여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서는 9월 20일자 해본총 제4222호에 따라 각 대학에 응모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집에 응모한 작품이 없었으므로 12월 6일자로 재소집된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회부하였고, 인사국에서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³⁷⁾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인사국은 해군장교 정모회장 개정 도안을 부내외에 널리 모집한다는 공고를 정훈감실에 의뢰하였다.

인사국장이 정훈감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³⁸⁾ 공고 방법에서부터 당선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공고 방법은 신문 게재, 라디오 방송 및 기타 가용한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응모 마감은 4289년(1956) 2월 29일까지로 한정하였고, 응모처는 해군본부 인사국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당선자 1인에게는 해군참모총장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5만환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발표는 신문 지상과 라디오를 활용하여 4289년 3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그런데 이 공고문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대목이 있다. 바로 해군장교의 정모회장을 왜 이 시점에 변경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변경 이유와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공고문에서 발췌한 다음 기록을

37) 『해군장교 정모회장(모표) 개정에 관한 건』, 4288년 12월 23일.

38) 『해군장교 정모회장(모표) 개정 도안 모집 의뢰의 건』, 해인발 제3104호, 4288년 12월 23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의장) 충무정신을 계승하여 호국의 방패로서 쇠신봉공하는 대한해군의 용감 무쌍한 전투력과 앞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여야 하며 미적 효과를 충분히 표현하는 현재적인 기교로서 의장하여야 함. 외국 해군장교의 모표나 기타 모표를 모방하여서는 아니됨.³⁹⁾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55년 중반기에 제기된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경 취지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충무정신을 계승하여 호국의 방패로서 쇠신봉공하는 대한해군의 용감 무쌍한 전투력을 상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작되는 정모휘장은 “앞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해야 하며, 미적 효과 또한 충분히 표현하는 현재적인 기교로서 의장해야 하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외국 해군장교의 모표나 기타 국내의 다른 모표를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독창적이면서도 한국 해군만의 고유한 문양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휘장이 미 해군장교의 문양을 모방하였던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조선 수군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발전해 가는 한국 해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정모휘장을 제정하기 위해 해군본부 인사국장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기획관에게 제출하였다. 현상 모집 시 당선자 1명에게 지급할 부상금 5만원과 신문 게재 시에 사용될 12만원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⁰⁾ 해군장교 정모휘장 개정 도안 모집

39) 위와 같음.

40) 『해군장교 정모휘장 현상모집에 따르는 예산 조치의 건 의뢰』, 인발 제3154호, 4288년 12월 30일. 3종의 신문에 대하여 각 5회씩, 매 회당 8천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공고는 최초로 공지한 바와 같이 1956년 2월 말 일자로 마감되었다.⁴¹⁾ 이어서 3월 16일자로 정모휘장 개정의 건을 비롯한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군예식복제위원회가 소집되었다.⁴²⁾ 3월 16일자로 소집된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도안을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선 작품이 없었으므로 응모된 도안을 본청 입구에 약 1개월 동안 게시하여 부내 장병 군속들에게 시달하고,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의 도안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⁴³⁾ 당시 인사국장이 시달한 투표 방침을 보면,⁴⁴⁾ “회보로서 취지를 주지시키고 본부 입구에 별도 응모 도안을 제시하여 본청 출입 장병 및 군속으로 하여금 투표토록 한다. 투표 용지에는 소속 성명을 기입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투표케 하는 방법을 취할 것. 가능한 한 본청 및 제1분청 근무자는 전원 투표토록 할 것. 투표에 있어서는 별도 참고사항을 도안과 같이 게시하여 투표에 앞서 참고케 한다”는 등 상세하게 그 방침과 유의사항을 시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래와 같이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 또한 공지하였다.

“모표의 의장은 외국 모표 또는 타 휘장을 모방하지 않은 것이라야 하며, 충무정신을 계승한 우리 해군의 용감무쌍한 전투력과 비약적인 발전을 표현한 것이라야 함. 현대적인 기교와 미적 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투표 시에는 해당 도안의 번호를 기입할 것. 게시된 도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좋은 안이 있는 것은 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함.”⁴⁵⁾

41) 『장교 모표 개정 도안 현상금 신청의 건』, 해인발 제572호, 4289년 3월 7일. 공모 마감 기한은 2월 29일까지였다.

42)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소집의 건』, 인1-6, 4289년 3월 7일;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소집의 건』, 행3-1-25, 4289년 3월 14일.

43) 『해군예식복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의 건』, 4289년 3월 20일. 위원회는 위원장에 준장 민영구, 위원으로 대령 현시학·이맹기·노진석·오범식, 중령 강태승·김진만, 간사 대위 박한익으로 구성되었다.

44) 『해군 장교모표 현상응모작 여론조사 실시 의뢰의 건』, 4289년 3월 22일.

45) 위와 같음.

인사국장은 외국의 모표 또는 다른 휘장을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 충무정신과 해군의 용맹함, 미래의 발전상을 표현한 것을 주목해볼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제시된 도안 중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좋은 도안이 된다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당시 현상에 응모한 도안은 총 36점이었다.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던 장교 72명, 사병 187명, 문관 49명으로 도합 308명이었다. 투표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안번호 25번과 4번, 5번이 각각 72표, 65표, 55표라는 높은 득표를 하였던 점이다. 나머지 도안이 최소 0명에서 최대 14명까지 득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⁴⁶⁾

1956년 4월 18일, 응모작에 대한 투표결과를 재심의하기 위한 해군예식복제위원회가 다시금 소집되었다.⁴⁷⁾ 하지만 4월 18일자로 계획한 위원회는 성원 미달로 4월 25일로 연기되었다. 민영구(閔泳玖) 준장을 위원장으로 4월 25일자로 소집된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서는⁴⁸⁾ 해군장교 정모휘장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별지 14번으로 의결한다. 단 앵커는 미국 모표 앵커와 동일한 모양으로 한다. 여러 가지 형을 제작하여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 각 참모부장을 참석케 하여 이를 심의키로 한다.⁴⁹⁾”로 의결하였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당시 참모총장이던 정공모(鄭兢謨) 제독이 불승인함에 따라 부결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별지 14번의 도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응모된 36개 도안 중 14번 도안은 투표수 0표로 전혀 주목받지 못한 도안이다. 어쨌든 이러한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에 의해 위원회 의결

46) 투표는 대략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해군역사기록관리단 CD본 자료(관리번호: 14-D-전-000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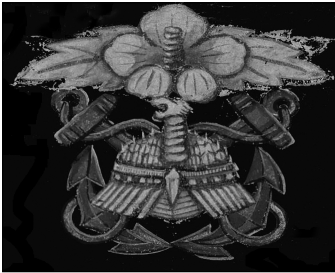
47)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소집의 건』, 행3-1-25, 4289년 4월 13일.

48)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소집의 건』, 4289년 4월 23일. 위원장과 위원, 간사는 주 43과 같음.

49)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4289년 4월 25일(해군예식복제위원회).

사항이 부결된 이후 인사국장은 5월 2일자로 경리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심의 중이던 해군장교 모표 개정에 관하여 별첨의 도안과 같이 제작하여 재심의하고자 하니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⁵⁰⁾”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볼 사실은 인사국장이 보낸 공문의 별첨 도안이 복제사 자료(CD본)에 수록되어 있는 데, 자료 ⑦⁵¹⁾의 문양이 그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박봉익(朴鳳翊)씨가 기제출된 응모안에 착안하여 도안한 문양으로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자료 ⑦〉



〈자료 ⑧〉



한편 박봉익씨의 도안을 기준으로 해군장교 정모휘장 견본이 완성되었다(자료 ⑧⁵²⁾). 이어서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위원들의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⁵³⁾ 먼저 위원장인 민영구는 “거북을 □□□하고 무궁화를 거북 선체보다 약 1/3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맹기(李孟基) 위원은 “거북이 너무 튀어나왔으니 무궁화 앞사귀를 없애 버리고, 꽃만을 옆으로 길죽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현시학(玄時學) 위원은 “무궁화를 은색으로

50) 『장교모표 견본 제작 의뢰의 건』, 해인발 제1122호, 4289년 5월 2일.

51) 해당 도안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CD본 자료(관리번호: 14-D-전-000020) 참조.

52) 당시 견본에는 상단에 무궁화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는 이것이 떨어져나간 상태이다.

53) 『해군장교 정모휘장 견본 심사에 관한 건』, 4289년 5월 24일. 참가 위원은 주 43과 같음. 위원장 민영구의 발언 중 “거북을 □□□하고”에서 □□□는 문서상 판독이 불가능하다.

하여 앞사귀와 같이 제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노진석(盧鎭錫) 위원은 “다른 것은 다 좋으나, 앵커를 미군 모표와 동일한 것으로 하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오범식(吳範植) 위원은 “거북선을 좀 들여 보내고, 용두를 약간 앞으로 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진만(金鎭萬) 위원은 제시된 표본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강태승(姜泰昇) 위원은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당시 간사로 참여했던 박한익(朴漢翼) 대위는 “거북선(龜船)의 부피를 훨씬 줄인다. 거북선(龜船)의 크기를 약간만 크게 한다. 앵커를 조금 줄여 스톡(stock)과 귀현간의 간격을 좁혀 공백을 메운다. 귀두 중 아래 입술과 윗입술 사이 금속을 떼어서 검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등 모두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 해군예식복제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기초하여 견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3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⁵⁴⁾ 먼저 제1안으로, “거북선(龜船)의 부피를 줄이는 동시에, 귀두를 약간 앞으로 낸다. 거북선(龜船)의 크기를 약간 크게 한다. 귀두 중 아랫 입술과 윗 입술 사이의 금속을 떼어서 검게 나타나도록 한다. 귀갑의 부조가 분명히 보이도록 높게 한다. 무궁화를 1/3가량 축소한다.” 제2안으로는, “거북선(龜船)의 부피를 약간 줄이는 동시에 귀두를 약간 앞으로 낸다. 앵커는 미 해군장교 정모휘장(모표)의 앵커와 동일한 모양으로 한다. 제1안의 3·4·5와 동일함.” 제3안은 “무궁화 잎을 없앤다. 무궁화 꽃을 옆으로 길게 한다.” 이처럼 견본에 대한 세부적인 결의사항 등이 반영되는 가운데 이전의 미 해군식과는 확연히 다른 문양의 해군장교 정모휘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해군장교 정모휘장 현상 응모에서 당선작은 없었지만, 가작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가 6월 11일부로 개최되었다.⁵⁵⁾ 최우수

54) 『해군장교 정모휘장 견본 심사결과 보고의 건』, 4289년 6월 1일.

55) 『해군정모 휘장(개정) 가작자 결정의 건』, 4289년 6월 11일.

가작은 앞서 언급한 인물인 박봉익⁵⁶⁾씨가 제출한 도안이 선정되었다(자료 ⑦). 박봉익씨에게는 상금 3만원과 함께 참모총장 상장이 수여되었다. 다른 가작으로는 주영길(朱永吉)⁵⁷⁾씨의 응모작(자료 ⑨)과 이동훈(李童勳)⁵⁸⁾씨의 응모작(자료 ⑩)이 선정되었다. 주영길씨와 이동훈씨에게는 각각 1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⁵⁹⁾

〈자료 ⑨〉



〈자료 ⑩〉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정모휘장 제정은 기존의 미 해군식 휘장을 탈피하여 충무정신을 계승하는 한국 해군만의 독창적인 문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해군 부내외에 널리 도안을 공모하고 당선작을 뽑아 제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선작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제출된 응모작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도안한 박봉익씨의 문양이 채택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모휘장 견본이 제작되었다. 견본이 제작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 거북선을 문양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군장교 정모휘장이 탄생하게 되었다.⁶⁰⁾

56)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번지 거주.

57) 당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진농동 519번지 거주.

58) 당시 부산시 초량동 2가 436통 2반 거주.

59) 『해군예식복제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4289년 6월 14일. 당시 가작자 선정 위원회에 참가하였던 위원은 주 43과 같으며, 실제 가작자가 상금을 수령한 일자는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해당한다. 당시에 수령한 영수증이 남아 있어 참고된다.

60) 거북선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양의 정모휘장은 1956년 6월 26일 해군복제 위원회에서 정식 결정을 보게 되었다(海軍本部 政訓監室, 1961, 위의 책, 23쪽).

나. 거북선 문양의 휘장 제작과 해군사적 의의

해군장교 정모휘장이 최종적으로 개정 결정을 보게 되자, 이를 제작 및 보급하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었다. 해군본부 인사국장은 기준서를 마련하여 소요되는 수량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경리국장에게 제출하였다.⁶¹⁾ 당시 인사국장이 제출한 공문에는 소요 수량이 2,000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국장은 1956년 8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부착하고자 하니 7월 중으로 제작 및 보급을 완료토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사국장이 경리국장에게 보낸 정모휘장 제작 기준서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장교모표 제작 기준서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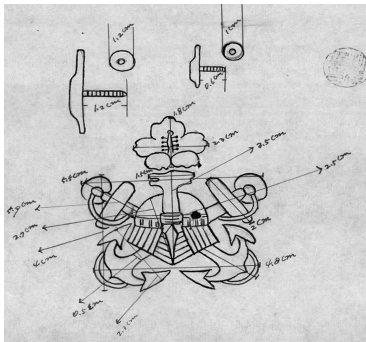
품 명	용 도	품원 지정	소 요 량
진주관	원관 귀현용	두께 1.0mm	1관 × 1/100
"	무궁화 및 앵커	두께 0.8mm	무궁화 1/250 앵커 1/80
"	연결용	두께 0.8mm	1/360
볼트 및 너트	거북선 내측 중심에 붙임	볼트 길이 14mm 너트 직경 12mm 두께 2mm	
보조 볼트 및 너트	거북선 용두 및 무궁화 중심에 붙임	볼트 길이 8mm 직경 2mm, 두께 1mm 너트 직경 9mm	순금
순금	무궁화 및 앵커 도금용	분석금	1/30총
니켈 및 크롬	거북선 도금용		
해산 및 초산	원재료 산 체척용		
양철	태지 하단 중앙용	폭 1인치 길이 3인치	1개
나사	태지용	흑색 폭 5.6인치	1/100마
능복지	태지 안감용	흑색 폭 3.0인치	1/100마
가당계	재봉틀 실	흑색 50번	3마

61) 『장교모표 제작 의뢰의 건』, 해인 1455호, 4289년 6월 14일.

62) 위와 같음(해당 문건 233쪽).

인사국장은 기준서와 함께 상세한 제작 방법까지 명시하였다. “원형 요철(凹凸)을 세밀하게 압착하여 규격면(規格面)에 확신(確信)을 기한 다음 발형각조(拔型各組)로서 압착 후 발취하고 부조면(浮彫面)이 명확하도록 제작하여 연마하고 안쪽 면의 볼트는 산소(酸素) 땀을 단단히 하여 이탈됨이 없도록 한다. 색상(色相)은 거북선은 은색 도금으로 하고 앵커 및 무궁화는 순금색 도금을 한다. 특히 앵커는 신중히 손질하여 미 해군장교 모표 앵커와 같이 광口효과⁶³⁾를 충분히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제작된 앵커는 날개별로 방수 하토롱지(紙)로 내포(內包)한 다음 마대지 상자에 포장하여 50개씩 결속한 뒤 복강면(複岡面) 보루 상자에 다시금 견고하게 포장하였다. 당시 제작된 정모휘장의 규격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⑪〉



자료 ⑪⁶⁴⁾은 당시 제작되었던 장교의 정모휘장에 대한 규격도이다. 휘장의 규격은 매우 자세하게 그 치수가 반영된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상호 교차된 앵커의 하단 간격은 4.8cm이고, 상단의 간격은 5.5cm로 나타난다. 거북선 최하단부터 용두까지는 3.5cm이고, 무궁화 하단부터 상단까지는 1.8cm, 무궁화 폭은 2.3cm이다. 거북선 하단 끝부터 선체 상단 둥근 부분까지는 2.7cm이고, 거북선 선체의 중앙폭은 2.5cm이다. 이 밖에 앵커의 두께, 교차된 앵커의 하단부터 상단까지의 간격, 용두의 폭, 볼트 및 너트의 길이와 폭 등 세밀하면서도 상세하게 규격을 규정하였다.

63) 광택효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나, 가운데 글자는 □는 미상이다.

64) 해당 도안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CD본 자료(관리번호: 14-D-전-000020) 참조.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정모휘장을 착용하는 대상과 그 시행일자를 명시하였다. “금번 해군장교 정모휘장이 … 개정되었으니 2□ 이상은 개정된 장교 정모휘장을 … 8월 15일부터 착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그것이다. 정모휘장을 부착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① 무궁화 및 거북선 용두(귀두)는 간격 없이 붙이고, ② 무궁화의 중심선과 거북선의 중심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③ 연결판은 모표대지(나사대지) 이면에 무궁화와 거북선 앵커의 각각 볼트에 끼워 너트로 채우도록 하였다. 부착 요령을 돕기 위하여 정모휘장의 규격이 반영된 도표를 별지로 첨부하였다(자료 ⑬70).

개정된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8월 15일부터 장교들 사이에서 널리 착용되었다. 하지만 배부된 휘장 중에는 부실하게 제작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해군본부 인사국장이 본부사령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금번 배부된 장교 모표 중 제품이 완전치 못한 것 또는 용접 개소가 떨어진 등의 고장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무료로 봉사하기로 되었으니 각 개인별로 아래 장소에 의뢰토록 하라”⁷¹⁾고 지시하고 있다. 수리 장소는 을지로 4가 국도극장 오른편에 위치한 문화공예사로 공문의 뒷면에는 그 약도가 첨부되었다.

한편 새롭게 제정된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문양적인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해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별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닻이 교차한 위에 거북선을 안치하여

70) 해당 도안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CD본 자료(관리번호: 14-D-전-000020) 참조. 사료 중 2□의 □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71) 『장교모표 수리에 관한 회보 의뢰의 건』, 4289년 8월 17일. 이 의뢰에 따라 해군본부 회보 제122호(4289.8.18.)로 해군 전반에 공지되었다.

무게와 위용감을 주고, 그 상부에 무궁화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의 균형을 잡았음. 무궁화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교차된 2개의 닻은 우리 해군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호단결과 강철 같은 결속을 의미하며, 거북선은 탁월한 창의성과 불요불굴의 감투정신과 백전백승의 용감무쌍한 충무정신의 표현이며, 삼면의 바다에 쌓인 우리나라 해방을 담당하는 해군력이 엄히 존재함(嚴在)을 암시한 것임.”⁷²⁾

기록을 통해 보듯이 새로운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문양적인 특징 면에서 볼 때 2개의 닻이 교차한 위에 거북선을 안치하여 무게와 위용감을 높이고, 그 상부에 무궁화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이룬 것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의 거북선을 중심으로 닻과 무궁화를 상호 조화롭게 배치하여 안정감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휘장을 구성하는 문양은 닻과 무궁화, 거북선을 소재로 삼았다. 각각의 문양은 나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교차된 2개의 닻은 우리 해군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호 단결과 강철 같은 결속을 의미한다. 거북선은 탁월한 창의성과 불굴의 감투정신과 백전백승의 용감무쌍한 충무정신을 상징한다. 정모휘장에 반영된 이러한 문양적 특징과 상징성은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면서 단결력과 결속력이 높은 대한민국 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염원의 발로이다.

새롭게 제정된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이전 시기의 휘장과 비교하여 해군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우선 정모휘장 자체가 매우 독창적인 문양이라는 사실이다. 창군기의 휘장이 무궁화와 앵커, 무궁화 잎사귀를 소재로 하여 보편적이며 고유한 대한민국 해군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지만, 해군만의 독창적인 문양이 반영되지는 못했다. 더구나 6·25전쟁 기간 중에 변경된 휘장에는 강력한

72) 해군장교 정모휘장 개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7월 30일자로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해군장교 정모휘장 및 문관 모표 개정 착용의 건 보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주 66 참조.

해군력 건설을 염원하는 문양을 반영하였으나, 미 해군의 상징인 독수리 문양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휘장은 종전의 미 해군식 도안을 초탈하고,⁷³⁾ 무궁화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해군의 독자성을 표현하되, 거북선을 핵심 문양으로 반영하여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정신을 강조한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롭게 제정된 정모휘장이 기존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문양으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⁷⁴⁾

〈자료 ④〉



한편 새로운 정모휘장은 대한민국 해군의 존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창군기의 문양이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하는 독자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나, 과거로부터 어떠한 전통을 계승한 해군인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미 해군식으로 변경된 휘장은 모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모호하다. 하지만 새로운 휘

73) 海軍本部 政訓監室, 1961, 위의 책, 23쪽.

74) 물론 문양의 전체적인 배치와 구도적인 면에서는 미 해군의 그것과 유사하다. 교차한 앵커를 중심축으로 중앙에는 거북선을, 그 상단에 무궁화를 위치시킨 형상은 미 해군의 정모휘장 배치구도와 동일한다(자료 ④, 피카웨이함 함장이 착용한 모자의 휘장 참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거북선의 용두방향이 미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독수리 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점이다. 정면을 향하도록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였을텐데 미 해군장교의 휘장과 같이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이다. 미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독수리 머리가 우측으로 향하는 이유는 그 발톱이 움켜쥐고 있는 상징물과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 좌측 발톱으로는 13개의 화살을, 우측 발톱으로는 월계수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데(월계수 가지에는 잎사귀와 열매가 각각 13개가 있다고 한다. 화살과 월계수 잎사귀 및 열매가 상징하는 숫자 13은 미국이 독립될 당시의 13개 주를 의미한다고 한다), 미 해군은 언제든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화살),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하기 때문에(월계수) 독수리의 머리를 우측으로 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Great Seal.com, Remarks and Explanation by Charles Thomson(June 20, 1782)]. 해군장교 정모휘장을 제작하던 1956년에 미 해군의 이러한 전쟁 철학과 사상을 반영하여 거북선의 용두 방향을 결정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형태적인 면은 고려한 것 같다.

장은 초창기의 문양을 탈피하여 거복선을 핵심 문양으로 하는 독창적인 형태의 휘장으로 제작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이 조선 수군의 역사 전통을 계승한 군대임을 확고히 하는 한편 충무공 이순신 중심의 수군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 전통을 확립하고, 정체성의 근원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시기에 형성된 충무공 중심의 해군 정체성은 비록 '50~'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해군 제도와 문화가 유입되고, 군함 및 무기체계가 도입되어 전력 건설 방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정신과 사상만큼은 충무공이 이룩한 수군전통을 끊임없이 계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해군장교 정모휘장에 새겨진 이러한 사상적 전통과 거복선을 특징으로 하는 독창적인 문양은 제정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대한민국 해군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문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자료 ⑭⁷⁵⁾).

4. 맺음말

이 글은 한국 해군의 상징이자 정체성의 표상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해군장교 정모휘장을 소재로 변천 과정과 그 함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군 장교의 정모휘장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문양으로 정립되고, 또한 그 문양으로의 정립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해군본부가 창군기부터 '80년대

75) 2015년 2월 현재 필자가 착용하는 장교 정모에 부착된 휘장으로 1956년에 새롭게 제정된 문양과 일치함을 살필 수 있다. 1956년 제정 이후 치수 면에서 일부 보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문양 자체에는 변화가 없음이 주목된다.

초반까지 생산한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정리한 예식복제기록물을 자료로 그 과정을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먼저 해방 이후부터 창군기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해군이 창설되는 초창기로 독자적인 수준의 복제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교의 정모휘장 만큼은 창군기부터 대한민국 해군임을 상징하는 문양을 반영한 특징이 발견된다. 그 특징은 앵커와 무궁화, 무궁화 잎사귀를 소재로, 중앙에 앵커를 위치시키고 그 주위를 무궁화 잎사귀가 감싸고 있으며, 상단에 활짝 핀 무궁화를 배치한 형상이다. 이는 세계 해군들이 인정하던 보편적인 문양과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을 조화롭게 배치한 것으로, 현대 한국 해군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역사성을 지닌다. 창군기부터 사용된 이 휘장은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개조나 변조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은 6·25전쟁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문양과는 다른 미 해군식 문양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해군장교의 정모휘장은 미 해군의 정모휘장을 모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앵커를 교차한 중앙에 양각의 문양이 부착되고 그 상단에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를 배치시킨 형태는 미 해군장교의 그것과 동일한 배치구도이자 동일한 문양이다. 다만 양각된 중앙의 문양에 동아시아 해역과 한반도를 표현한 지구본과 활짝 핀 무궁화를 배치하여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구도는 한국 해군임을 상징하는 문양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아 미국의 해군제도와 문화, 해양전략 사상 등이 한국 해군에 유입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분위기 속에서 미 해군식 문양을 수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 해군식 문양으로 변경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해군

총참모장 직을 수행하고 있던 손원일 제독이었다. 손제독이 미 해군식 문양으로 변경한 데에는 미 해군의 전략사상가였던 마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손제독이 마한의 전략사상을 학습하였다는 기록은 확신하기 어렵지만, 그가 제창한 해양력 이론에 근거하여 해군력과 국가발전의 상관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염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손제독에게 있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은 숙원 사업이었으므로 세계적 수준의 해군을 운용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 해군이 지향해야 할 표본이자 이상적인 모델로 삼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강력한 해군력을 상징하는 미 해군식 문양으로의 변경은 곧 미국과 같이 강력한 수준의 해군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문양으로의 변경이 가능하였던 셈이다.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1955년 중반에 이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5년 5월 31일자로 소집된 해군예식복제위원회에서 해군장교 정모휘장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해군예식복제위원회가 정모휘장의 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기존 휘장이 미 해군의 문양을 모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 해군식 휘장을 탈피하여 한국 해군만의 독창적인 문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해군 부내외에 널리 도안을 공모하고 당선작을 뽑아 제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선작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제출된 작품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도안한 박봉익씨의 작품이 채택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모휘장 견본이 제작되었다. 견본이 제작된 이후 심의 위원회를 비롯한 세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 거북선을 핵심 문양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군장교 정모휘장이 제정되게 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2개의 닳이 교차한 위에 거북선을 안치하여 무게와 위용감을 높이고, 그 상부에 무궁화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이룬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교차된 2개의 닳은 해군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호 단결과 강철 같은 결속을 의미한다. 거북선은 탁월한 창의성과 불굴의 감투정신, 백전백승의 용감무쌍한 충무정신을 상징한다. 정모휘장에 반영된 이러한 문양적 특징과 상징성은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면서 단결력과 결속력이 높은 대한민국 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한편 새로운 해군장교 정모휘장은 이전 시기의 휘장과 비교하여 해군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정모휘장 자체가 매우 독창적인 문양이라는 사실이다. 창군기의 문양과 6·25전쟁기 미 해군식 문양을 탈피하여 거북선을 핵심 문양으로 하는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정신을 반영한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롭게 제정된 정모휘장이 기존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문양으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모휘장은 대한민국 해군의 존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함의를 갖는다. 창군기의 문양이나 미 해군식으로 변경된 문양이나 모두 대한민국 해군이 과거로부터 어떠한 전통을 계승한 해군인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휘장은 대한민국 해군이 조선 수군의 역사 전통을 계승한 군대임을 확고히 하는 한편 충무공 이순신이 이룩해낸 수군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 전통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의 근원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이 시기에 형성된 충무공 중심의 해군 정체성은 이후 미국의 해군 제도와 문화가 유입되고, 군함 및 무기체계가 도입되어 한국 해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정신과 사상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해군장교 정모휘장에 새겨진 이러한 사상적 전통과 거북선을 특징으로 하는 독창적인 문양은 제정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대한민국 해군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문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2014.11.4, 심사수정일: 2015.2.24, 게재확정일: 2015.2.26]

주제어 : 해군, 장교, 정모휘장, 손원일, 이순신

<ABSTRACT>

The transition of Republic of Korea Navy officers' hat device insignia and its implication

Shin, Seong-Jae

This paper pertains to the process and implication of the transition of Republic of Korea Navy officer's hat device insignia.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process of transition that lead to today's design of the Navy officer's hat device insignia as well as the implication of each change that was made to the design.

Although various categories exist within the history of uniform regulations, the author chose to focus on the Navy officer's hat insignia for a special reason. The author believes that an investigation of the transitional history of the hat device insignia will help us understand what tradition was succeed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vy. This will ai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identity of the Korean Navy.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of a record of the uniform regulation history published in late 2013, three distinctive features were found to be monumental in the history of tran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officer's hat device insignia.

The first design was the insignia that was used during the liberation era and the founding era of the armed forces. The Navy anchor, Mugunghwa(Hisbiscus syriacus, national flow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eaf of Mugunghwa appears on the insignia. This design harmoniously arranged a universal symbol for Navy as well as two unique symbo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has a historical meaning in symbolizing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The second design was the insignia that was used during the Korean War. An eagle appears on the insignia, which was modeled after the insignia

of the United States Navy. This shows the desire of Admiral Sohn, Won-il to build a Navy as powerful as the Navy of the United States. Unlike the previous insignia, this insignia shows features of the imitation the insignia in the United States Navy.

The third design was newly adapted in the mid-1950s, which features the Turtle Ship at its core. This shows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as a Navy that inherits develops the naval tradition of Chungmugong Lee, Sun-shin. This brings much meaning to the insignia, in the sense that it establishes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Navy as well as the origin of its identity.

The unique design and the ideological tradition of the Navy officer's hat device insignia that features the Turtle Ship at its center has remained unchanged for more than sixty years, deeply rooted as the symbol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Key words : navy, officer, hat device insignia, Son Won-il, Yi Sun-sin